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¹⁾

金 東 栓*

〈목 차〉

- I. 머리말
- II. 佛敎의 濟州流入과 法華寺의 創建
- III. 元의 法華寺 重創
- IV. 法華寺의 三尊佛像과 對明關係
- V. 法華寺의 廢寺
- VI. 맺음말

I. 머리말

제주도에는 '당오백 절오백'이란 말이 전승되고 있을 정도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많은 불교 사찰이 있었다. 그러한 불교사찰 가운데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 제주도에 있었던 가장 거대한 사찰이 바로 法華寺²⁾였다. 법화사는 태종 8년(1408)까지만 하여도 280여 명의 노비가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던 비보사찰이었다는 사실³⁾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규모가 대단하였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화사는 조선의 송유억불 정책에 의해 조선 중기 이후 점차 쇠퇴되어 초가 암자 몇 칸 만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廢寺되고 말았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1) 이 글은 기존의 「역사적 배경」(『법화사지』, 서귀포시·제주대학교 박물관, 1992, 1997)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작성에 고창석 교수님(제주대 사학과), 한성욱 선생님(송광사 학예연구원), 강창화 선생님(제주대 박물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 2) 제주도기념물 제13호로 지정(1971년 8월 26일)되어 있는 법화사지는 서귀포시 하원동 107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표고는 160~170m이며, 이 유적은 1982년 이래 모두 8차례에 걸쳐 발굴이 진행되었다.
- 3) 『太宗實錄』 권15, 태종 8년 2월, 정미.

법화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8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관련하여 법화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이 일대에 대한 발굴⁴⁾과 복원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1985년에 행해진 「地方文化財濟州法華寺 復元을 爲한 學術세미나」(서귀포시·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법화사는 중국 산둥반도의 赤山法華院, 전남 완도 청해진의 법화사와 함께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장보고와 일정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찾아지지 않고 있다.

法華寺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상적으로 『法華經』을 근본으로 삼아 발전된 불교사상의 하나인 法華思想에 기초를 두었던 사찰이었다. 중국 智顓에 의해 체계화된 법화사상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통일신라에 들어와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혜공왕 때의 法融의 영향으로 천태종의 성격을 띤 법화사상이 유행하여 고려로 전승되어 나갔다. 특히, 고려 후기의 천태종은 白蓮寺系와 妙蓮寺系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법화사에 彌陀三尊 佛像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화사는 백련사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문헌기록의 제약 등으로 법화사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법화사의 創建과 重創, 법화사에 봉안되었던 아미타 삼존불상이 명으로 이송된 배경, 그리고 법화사의 廢寺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화사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佛敎의 濟州流入과 法華寺의 創建

불교의 제주유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된다. 하나는 남방전래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방전래설이다. 남방전래설은 『法住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범주기는 석가세존이 涅槃한 800년 후에 獅子國(지금의 스리랑카) 大阿

4) 법화사에 대한 최초의 발굴은 1982년 명지대학교 박물관(金鴻植교수팀)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발굴을 통해 고려후기 금당지가 확인되었다. 법화사지에 대한 2~8차 조사(1987~1997년)는 제주대학교 박물관 강창화 연구원의 실질적인 책임 하에 발굴이 이루어졌다. 건물지와 연지추정지역에 대한 발굴결과, 건물지는 크게 4시기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1차시기(1269년 이전), 2차시기(1269년~1400년경), 3차시기(1400년경~1600년경), 4차시기(1600년경 이후)로 구분된다고 한다(『법화사지』,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羅漢 難提蜜多羅 尊者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正法을 수호하려고 盟誓한 16阿羅漢에 대한 이야기로, 아라한은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을 濟度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⁵⁾ 이 법주기에 나타나는 석가의 제자 중 제6존자인 跋陀羅尊者에 대해 李能和는

법주기에 이르기를 16羅漢이 각각 사는 곳이 있었는데, 여섯번째 跋陀羅尊者는 梵語로 발타라는 중국 말로 好賢이라는 뜻인데, 이 존자가 9백 阿羅漢과 더불어 耽沒羅洲에 많이 나누어 살았다. 예로부터 전하기를 탐몰라주는 곧 耽羅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제주이다. 제주에는 한 산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름은 漢孛라 한다. 산 정상에는 백록담이 있는데, 깊이는 밑이 없으니 곧 오랜 옛날 분화구이다.(중략) 『동국여지승람』을 살펴건대 '제주의 존자암은 한라산 西嶺에 있는데 그 東에는 행도하는 승의 모양과 같은 돌들이 있으므로 속전하기를 修行洞이라 운운한다. 존자암은 곧 옛날 발타라존자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 함은 그럴 듯하다. 그 이른바 五百將軍石은 역시 五百羅漢石을 잘못 칭한 것이라 함도 그럴 듯하다.⁶⁾

라 하여 탐몰라주는 제주의 옛 이름인 탐라를 지칭하는 것이며, 제주 한라산에 있는 존자암은 곧 제6존자인 발타라존자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 남방불교의 전래를 시사하였다.

이러한 이능화의 주장은 최근 제주도의 향토사가학자 김봉옥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⁷⁾ 김봉옥은 『三國志』 魏書 韓條의 다음과 같은 州胡 관계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즉 '또 州胡가 마한의 서해 중에 큰 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달리 키가 작고 말은 韓과 같지 않으며 모두 머리를 깎아서 선비족과 같다. 다만 가죽옷을 입고 소와 돼지를 즐겨 친다. 그들의 옷은 위는 있고 아래는 없으니 대략 알몸과 같다. 배를 타서 中韓을 왕래하면서 장사를 한다'라 한 내용에서 주호의 말이 韓과 같지 않고 모두 머리를 깎았고, 배로 中韓을 왕래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중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불교 승려들이 삭발을 뜻하는 것으로 발타라존자의 권속을 말하는 것이 다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⁸⁾ 그러나 이 주호(국)가 제주도에 위치해 있

5) 高昌錫, 「歷史的 背景」, 『尊者庵址』(제주대박물관), 1996, 참조.

6) 李能和, 「耽沒羅洲尊者道場」, 『朝鮮佛教通史』, 1917.

7) 김봉옥, 「尊者庵記」, 『尊者庵址-발굴조사중간보고-』(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pp.121~125 참조: 「제주불교의 뿌리」, 『법향』(제주불교 거사림), 1995, 10; 「제주불교의 기원」, 『耽羅, 歷史와 文化』(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편), 1998.

8) 김봉옥, 「제주불교의 기원」, 『耽羅, 歷史와 文化』(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편), 1998.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고,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승려의 삭발로 해석하는 것도 건강부회의 해석이라 여겨진다.

그는 나아가 『續日本記』의 '천평 3년(731년) 가을 7월 올해의 雅樂療, 雜樂生을 정하였는데 大唐樂 1인, 백제악 26인, 고구려악 8인, 신라악 4인, 度羅樂 62인, 諸縣舞 8인, 築紫舞 20인이다. 대당악생은 중국말을 잘 하지 못하여도 교습하는데 견디어낼 수 있는 자를 뽑고, 백제·고구려·신라악생도 교습에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였다. 다만 탁라악·제현무·축자무생은 아울러 樂戶(음악가)에서 취하였다'라 한 부분의 度羅樂을 발타라존자의 권속들에 의한 불교음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그러나 이 기사에 등장하는 度羅가 탐라, 곧 제주를 지칭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음악이 불교 음악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 跋陀羅가 梵語 '브하드라'의 音寫[漢譯]임을 볼 때, '耽沒羅洲'도 범어의 음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¹⁰⁾ 범주기의 탐몰라주가 제주를 지칭하는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방전래설은 크게 삼국시대 제주에 불교가 유입되었다는 설과 고려시대 유입되었다는 설로 구분된다. 먼저 삼국시대 제주에 불교가 유입되었다는 설은 文明大 등이 지적한 것으로 고구려·백제·신라와 빈번한 교역을 행하였던 탐라가 당시 삼국의 발달된 불교문화를 교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당시 백제는 개로왕 21년(475)에 고구려에 쫓겨서 공주로 천도한 후, 20여 년이 흐른 후이므로 국가도 꽤 안정되었고 따라서 불교문화도 다시금 꽃피기 시작한 때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불교문화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화가 제주도로 전파되지 않았을리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부여로 천도한 후 불교문화가 절정을 이루면서부터는 제주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¹¹⁾

라 하여 삼국 중에서도 백제불교의 제주 유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려를 통한 불교유입설은 덕종 3년(1034) 탐라의 사신이 정종의 왕위 즉위식에 참여하면서 곁하여 고려의 불교행사인 팔관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9) 김봉옥, 위의 글.

10) 高昌錫, 「歷史的背景」, 『尊者庵址』(제주대박물관), 1996, 참조.

11) 文明大, 「法華寺의 歷史와 意義」, 『地方文化財 濟州法華寺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서귀포시, 1985, p.19.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고려 불교가 제주에 전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진원일과 양증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탐라에) 불교가 들어 온 것은 고려 덕종 3년(1034)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탐라 사신이 연등공양의 불사의 하나인 팔관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탐라인이 불교에 접하였던 구체적인 사례인 만큼, 불교 전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교 전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혹이면 이러한 일을 계기로 불교가 전래되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만은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중략) 덕종 3년(1034, AD)을 전후하여 탐라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을 추정한 秦 교수의 의견에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¹³⁾

라 하여 탐라 사신이 고려 팔관회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기로 제주에 불교가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제주불교 유입 가능성은 제주도가 처한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모두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주장되고 있는 발타라존자의 제주 입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탐라 사신이 고려 불교행사인 팔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미 탐라에 불교사상이 유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 불교가 유입되는 시기는 삼국시대 탐라국의 빈번한 해상교역이 전개되던 5~7세기, 혹은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法華寺는 水精寺·元堂寺와 더불어 고려후기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사찰로 많이 알려져 있다. 원당사는 원의 순제 때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¹⁴⁾ 법화사 및 수정사는 그 창건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찰은 조선중기까지 계속 존속되어 제주불교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특히 법화사와 수정사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漢拏山 南·北을 대표하는 사찰로 유명하였다.

12) 秦元日 외, 「耽羅의 學藝·言語·宗教의 研究」, 『논문집』 제3집, 제주대, 1971, p.43.

13) 梁重海, 「耽羅의 佛敎와 水精寺」, 『水精寺·元堂寺 地表調査報告』, 濟州大學校博物館, 1988, p.10, 11.

14) 원당사의 창건을 1300년(충렬왕 26) 경, 원 순제의 제2황후였던 奇皇后의 소원에 의하여 창건된 것으로 구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기황후가 원 황실의 궁녀가 된 것이 1333년(충숙왕 2)의 일이며, 순제의 총애로 1335년에 황후로 책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伯顔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후 1339년에 황자 愛猶識理達臘을 낳았으며, 황후가 된 것은 1340년(충혜왕 1) 4월의 일이다(李龍範, 「奇皇后의 册立과 元代의 資政院」,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따라서 원당사가 기황후의 소원에 의해 창건되었다면 1333년 혹은 1340년 이후이어야 할 것이다.

법화사의 창건에 대한 事蹟記나 문헌기록은 현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화사의 창건 연대는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 일찍이 김태능은 탐라가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탐라에는 많은 문화가 제주에 유입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불교문화라 주장하였다. 특히, 김태능은 법화사·수정사·원당사 등의 큰 사찰들이 元인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동·철 불상 등도 원에서 들여다가 이 절에 안치하는 등 불교발전에 공헌하였다¹⁵⁾고 주장하고 있어 몽고불교의 제주전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법화사·수정사·원당사 등의 사찰이 원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화사의 창건은 몽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최근의 발굴 성과인 법화사의 중창 사실을 알려주는 명문기와를 통해서도 명백히 입증된다. 따라서 법화사는 원의 제주간섭 이전에 창건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원의 제주간섭과 함께 원에 의해 법화사가 대대적으로 중창됨으로써 제주의 불교문화가 더욱 왕성하게 된 것이다.

文明大는 9세기 경 張保臯가 해상을 지배하고 산동반도에 法華院을 창건했듯이, 제주도에 法華寺를 창건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제주도가 해상왕국의 중심지인 莞島(淸海鎮)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신라·일본·중국의 무역활동 교류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 즉, 일본 승 円仁이 순례를 위해 중국으로 떠날 때에는 일본 博多에서 출발하여 제주도 남쪽 해안을 거쳐 양자강으로 들어 갔고, 돌아올 때는 산동반도의 적산을 출발하여 제주도 북쪽 해안을 거쳐 博多로 귀환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金成勳은 장보고가 완도, 산동성 적산촌, 제주도 하원 등지에 그의 本願寺刹으로써 법화사를 건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1990년 중국 榮成市 石島鎮의 赤山 法華院에 세워진 비문에도 장보고가 그의 본원사찰로서 석도의 적산, 완도의 상항봉, 제주도 등에 법화원을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⁸⁾ 또 김성

15)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 38.

16) 西歸浦市·法華寺復元推進委員會, 『地方文化財 濟州法華寺 復元을 위한 學術세미나 요지』, 1985, pp. 18~21.

17) 金文經·金成勳·金井昊 編, 『張保臯:해상경영사연구』, 圖書出版 李鎮, 1993, p. 21.

18) 『紀念張保臯大使碑記』, 「…張大使曾在石島赤山, 莞島象皇峰和濟州道等地建造法華院…」, 이 비는 1990년 2월 23일 세워진 것으로, 당시 중앙대학교 중국연구소장인 金成勳이 撰文한 것이다.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훈은 법화사에서 출토된 중창 명문기와를 근거로 법화사를 청해진과 마찬가지로 장보고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다.¹⁹⁾

이러한 주장들은 법화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大浦'의 옛 명칭이 '唐浦'라 하여 당과의 교류에서 지명이 비롯되었다는 口傳과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주초석과 같은 주초석이 1990년 5월 대포해안에서 발견되었다는 金平允의 이야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려 靖宗 때에 두 차례 탐라에서 사신을 보내 팔관회의 의식에 참여하고²⁰⁾ 있는 것에서도 제주에 일찍부터 불교가 유입되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법화사가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에 의하여 창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법화사 창건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법화사 창건의 실마리는 고고학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법화사에 대한 제1차 발굴조사를 행했던 명지대학교 박물관팀은 조사에서 수습된 도자기 파편과 기와조각으로 미루어 볼 때, 법화사의 창건은 고려전기인 10~12세기경으로 추측한 바가 있다.²¹⁾ 또한 제주대학교 박물관팀에서 발굴한 결과, 「開元通寶」란 화폐의 발견 및 10~12세기경의 소규모의 도자기 파편이나 기와가 출토된다²²⁾는 보고가 있어, 법화사의 존재는 10~12세기경까지는 고고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開元通寶」의 開元(713~741년)은 天寶(742~755년)와 함께 중국 당나라 玄宗의 연호 가운데 하나이다. 개원천보시대인 현종 당시 당나라 수도인 長安은 국제도시로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다. 그의 치세로 대표되는 '開元の 治'는 당 太宗의 '貞觀의 治'와 비교되기도 한다. 시인 李白이나 杜甫 뿐만 아니라, 화가 王維 등이 배출되어 당나라가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이다. 그러나 「開元通寶」는 중국 뿐만 아니라, 이를 모방하여 고려에서도 주조되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굴에서 출토된 「開元通寶」 화폐가 唐武宗 會昌年間(841~846)에 주조된 것이라²³⁾ 하더라도 다른

19) 장보고 대사 해양경영사 연구회·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주최, 「장보고대사 해양경영사 제1회 국제학술 심포지움」, 전라남도 완도군 대회실, 1992, 11, 19~20.

20) 『高麗史』, 「禮志」嘉禮雜儀仲冬八關會條. 高昌錫 編著, 『耽羅國史料集』, 圖書出版 新亞文化史, 1995, p. 50, 51 참조.

21) 명지대학교박물관, 『법화사발굴조사보고서』, 1983.

22)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법화사지』, 1997.

23) 강창화(제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원)에 의하면, 화폐의 배면 상단에 초승달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형식으로 볼 때 이때 주조되었다는 것이다.

유물이 공반되지 않는다면, 유동성이 강한 화폐 한 점으로 법화사의 창건시기를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앞으로 법화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문헌사료가 없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장보고와의 관련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Ⅲ. 元의 法華寺 重創

법화사는 원에 의해 중창되었음이 그동안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1992년 법화사 발굴에서 중요한 하나의 명문기과를 찾아냈다. 즉 「…始重創十六年己卯畢」이라 명문된 기과가 그것이다.²⁴⁾ 당시 이 명문에 대한 해석을 「…(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16년 기묘년에 마쳤다」로 추정하고, 16년을 원 세조의 年號인 至元 16년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至元 16년 기묘 즉, 고려 충렬왕 5년인 1279년에 법화사의 중창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²⁵⁾ 그러나 언제부터 중창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1997년 제7차 발굴조사에서 이를 입증해 주는 중요한 명문 기과가 출토되었다. 즉, 「至元六年己巳始…」라 한 명문 기과가 그것이다. 이는 지난 92년 출토된 「…始重創十六年己卯畢」 명문 기과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 기과의 명문을 연결해 보면, 「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이란 문장이 된다. 즉, '지원 6년 기사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지원 16년 기묘년에 끝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화사의 중창은 1269년(원종 10, 己巳, 至元 6)에 시작하여 1279년(충렬왕 5, 己卯, 至元 16)에 마무리 되었음이 명백하다.

법화사가 瓦當 명문에서와 같이, 1269년(원종 10)에 중창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元의 탐라국 통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원은 세계대제국 건설을 위하여 일본과 남송 정벌을 모색하고 있었다. 즉, 원은 정벌에 이용될 1,000척 외에 따로 100척의 선박을 탐라에서 건조하도록 조치하

24) 濟州大學校博物館·西歸浦市, 『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 調查報告 第10輯, 1992.

25) 앞의 책, p.29.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였다.²⁶⁾ 그리고 원의 세조는 다시 脫朵兒·王國昌 등을 보내어 탐라 등지의 海路를 탐사토록 하였다.²⁷⁾ 이러한 조치는 정벌에 필요한 戰艦의 일부를 탐라에서 얻고자 한 것이며, 해로탐사는 정벌시에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후 1270년(원종 11)에는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대몽항쟁을 전개하였고, 제주에서 대몽항쟁을 전개하고 있던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의해 평정된 직후인 1273년(원종 14) 6월 元은 제주 지역의 통치를 위하여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였다. 이 官府는 1275년(충렬왕 원년) 경에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개편되었고,²⁸⁾ 이 때부터 원에서는 제주지역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그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법화사의 중창은 이러한 원의 제주지역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법화사는 원이 제주를 남송 및 일본 정벌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한 1269년 이전, 언제인가 창건되어 있다가 제주에 원의 힘이 미치면서 법화사도 중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법화사는 탐라에 대한 원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1273년(원종 14)년 이후에는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IV. 法華寺의 三尊佛像과 對明關係

洪武帝 즉, 朱元璋에 의해 명이 1368년에 건국되자, 배원정책을 실시하던 고려는 명과 외교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제주는 탐라총관부로 원의 간섭 하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나아가 고려가 명과 관계를 맺게되면서 제주는 명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공민왕 19년(1370)에 고려는 명과 탐라의 문제를 결정하였다. 즉, 탐라에 대한 지배권은 고려에서 행사하는 대신에 제주에서 생산된 말[馬]의 경우는 때에 따라 명에 진헌하는 것으로 타결되었

26) 『元高麗紀事』 至元 5年 7月 28日條, 『元史』 本紀 至元 5年 7月 丙子條, 『高麗史』 권 27, 世家 27. 元宗 9年 10月 庚寅, 高昌錫 編著, 『耽羅國史料集』, 圖書出版 新亞文化史, 1995, p. 70.

27) 高昌錫 編著, 『耽羅國史料集』, 圖書出版 新亞文化史, 1995, p. 267 참조.

28) 그 후 1284년(충렬왕 10)에 軍民安撫司로 개편되었으며, 1294년(충렬왕 20)에는 탐라국에 대한 지배권이 일시 고려에 환속되었다가 1300년(충렬왕 26)에 원이 耽羅總管府를 설치하였고, 1301년(충렬왕 27)에 軍民萬戶府로 개편하였다.

되었다.²⁹⁾ 그러나 공민왕 21년(1372) 4월에 제주에서 반란이 일어나 목사 겸 만호 이용장 등이 피살되었다.³⁰⁾ 이에 고려는 명나라에 民部尙書 張子溫 등을 사신으로 보내 탐라정벌을 요청하기에 이른다.³¹⁾ 당시 명의 입장은 탐라를 정벌하게 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고려의 탐라정벌 요청에 신중하게 대처함으로써 명의 탐라정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³²⁾

그러나 공민왕 22년(1373)에는 명에서 濟州貢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고려에 문책을 가해왔고,³³⁾ 이듬해에는 2,000필의 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³⁴⁾ 제주의 목호들은 '원에서 기른 말을 원수의 나라인 명에 바칠 수 없다'며 다시 난을 일으키자, 이들에 대한 토벌이 최영에 의해 이루어졌다.³⁵⁾ 한편, 홍무제는 원 왕실을 단절시키게 되면 자신에게 불행이 따른다는 속설을 믿고 원 왕실을 존속시키기 위한 지역으로 제주를 선택하였고, 이들에게 절강성의 양곡을 운반하여 보급하고자 하였다.³⁶⁾ 양왕이나 백백태자, 달달친왕 등의 濟州安置는 원 왕실을 먼 곳에 배려하여 후환을 미리 예방하고, 원 후손의 존속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390년에 명이 제주에 안치되어 있던 백백태자의 아들 六十奴를 일시 송환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조선이 개국된 후, 조선과 명의 관계는 表箋問題³⁷⁾ 등으로 긴장관계가 형성되다가 15세기 초 조선과 명의 관계는 일시 우호적 관계가 수립되는 듯 하였다. 명의 성조가 황제에 즉위하자, 조선에서 발빠르게 이를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였다. 불법적인 왕위 계승으로 정통성에 약점을 지니고 있던 명의 永樂帝로서는 조선의 축하사절단은 하나의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락제

29) 『高麗史』 권42, 世家42, 공민왕 19년 7월 갑진. 高昌錫, 위의 책, 참조.

30) 『高麗史』 권43, 세가 43, 공민왕 21년 4월 기묘. 고창석, 위의 책, p.121~123.

31) 『高麗史』 권43, 세가 43, 공민왕 21년 4월 임인. 高昌錫, 위의 책, 참조.

32) 『高麗史』 권43, 세가 43, 공민왕 21년 9월 임술. 高昌錫, 위의 책, 참조.

33) 『高麗史』 권44, 세가 44, 공민왕 22년 7월 임자. 高昌錫, 위의 책, 참조.

34) 『高麗史』 권44, 세가 44, 공민왕 23년 4월 무신. 고창석, 위의 책, 참조.

3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고창석, 「元·明 交替期の 濟州島: 牧胡亂을 중심으로」, 『耽羅文化』4, 1985.

36) 『高麗史』 권137, 열전 50, 辛禡 14년 6월. 高昌錫, 위의 책, 참조.

37) 이는 조선에서 명 황제에게 보내는 표전 속에 실없이 명 황제를 놀리는 뜻이 담긴 글자 즉, '讒侮'·'戲侮'가 들어 있다고 하여, 명에서 조선 사신의 억류 및 표전 작성자를 명으로 압송해 오도록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朴元熈 「明初 文字獄과 朝鮮表箋問題」, 『사학연구』 25, 1975, 참조.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의 대외정책으로 요동경략이 이루어지고, 그 영향력이 두만강 일대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명과 조선은 또 다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³⁸⁾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의 영락제는 태종 6년(1406)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즉,

명나라 內使 黃儼·楊寧·韓帖木兒·尙寶司尙寶 奇原 등이 이르니, 山棚을 맺고 儼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時服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盤松亭에 나가서 百戲를 배풀고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렀다. 勅書는 이러하였다.

“朕이 先皇考·皇妃의 은덕을 거듭 생각하여 薦揚하는 祭典을 거행하고자 하여, 특별히 司禮監太監 황업 등을 보내어 그대 나라와 耽羅에 가서 銅佛像 몇 座를 구하게 하니, 잘 도와 성사시켜 朕의 뜻에 副應하도록 하라.”³⁹⁾

라 하여,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은 黃儼·韓帖木兒·楊寧·奇原 등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명의 황제가 태종에게 보내는 문서 및 의복 등의 전달 외에, 조선과 제주도 法華寺에 봉안되어 있던 阿彌陀 三尊佛像을 명나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태조 홍무제와 황비의 은덕을 薦揚하는 祭典을 거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아미타 삼존불상은 1269년(원종 10, 지원 6)~1279년(충렬왕 5, 지원 16)에 법화사의 중창을 마친 元이 뛰어난 장인을 시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銅佛이다.

법화사에 봉안된 아미타 삼존불상을 가져가기 위한 명나라 사신의 내방은 조선으로서는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임금이 (태평)관에서 연회를 열었다. 술이 취한 (黃)儼은 취한 것을 핑계대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韓)帖木兒가 말하기를 ‘제주의 법화사에 있는 彌陀三尊은 원나라 때 良工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곧바로 가서 取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회롱하여 말하기를 ‘정말 마땅하다. 다만 부처님의 귀에 물이 들어갈까 두렵다’ 하였더니 帖木兒 등이 모두 크게 웃었다. (중략) 黃儼 등이 친히 제주에 가서 銅佛像을 맞이하려 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황제(명나라의 황제)가 黃儼 등으로 하여금 탐라의 형세를 보게함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걱정하여 군신과 의논하고 급히 金道生과 司直 朴謨를 宣差하여 제주에 급히 가서 법화사의 동불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대개 말하기를 만약 불상이 먼저 나주에 이르면 黃儼 등이 제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⁴⁰⁾

38) 박원호, 「명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39)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4월 기묘.

40) 『太宗實錄』 권11, 太宗 6年 4月, 庚辰條.

「上至墩設宴 酒乞 儼辭以醉先入室 帖木兒曰 濟州法華寺彌陀三尊 元朝時良工所鑄也 某等當徑往取之 上權曰 固當 但恐水入耳 帖木兒等皆大笑 儼等 欲親至濟州 迎銅佛像 或曰 帝使儼等 觀耽羅形勢 意有所在 上憂之 謀諸群臣急 遣 宣差金道生司直朴謨 馳往濟州 以法華寺銅佛像來 盖謂若佛像先至羅州 則儼等不必入濟州也」.

라 한 바와 같이, 태종은 명나라 사신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고, 태평관에서 연회 도중에 명나라 사신 한첩목아는 자신들이 직접 제주 법화사에 가서 아미타 삼존불상을 가지고 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태종은 '그 뜻은 가상하나, 그러다 부처님 귀에 물이 들어갈까 염려된다'며 명의 사신들을 비아냥 거렸던 것이다. 태종은 황엄 등이 이를 핑계로 탐라의 형세를 파악하고자 하는 명나라 황제의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위의 권고에 따라 급히 金道生과 朴謨를 宣差하여 제주 법화사에 가서 불상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이는 彌陀三尊 佛像이 羅州에 도착하게 되면 황엄 등이 제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제주도의 사정이 명나라에 소상하게 알려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 태종은 명나라 황제가 의도하는 것은 아미타 삼존불상이 아니라, 이를 미끼로 명나라 사신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명나라에서는 고려말 이래로 馬匹 등과 관련하여 제주도 귀속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하여 왔었다. 그러나 결국 탐라에 대한 지배권이 고려로 결정되어 이어져 오고 있었으나, 태종은 이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국왕은 명나라 사신들이 직접 제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신하들과 의논을 거듭한 결과, 명나라 사신들이 제주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에서 미리 제주 법화사의 불상을 전라도로 운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면 황엄 등이 제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제주도의 사정이 명나라에 소상하게 알려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金道生과 司直 朴謨를 급히 제주에 파견하는 한편, 전라도 관찰사 朴闇은 제주목사에게 이러한 사실의 공문을 보냈다. 제주목사는 병졸을 거느리고 법화사의 삼존불상을 전라도로 이송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다가 김도생 등이 도착하자 해안에서 이를 바로 인계하였던 것이다.⁴¹⁾

한편 명나라의 사신들은 知議政府事 朴錫命의 안내를 받고 전라도로 향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은 태종이 직접 나와 전송하지 않음을 노여워하였다.⁴²⁾ 그러나 이는 명나라 사신들이 직접 제주로 들어가 불상을 가져오겠다는 것에 대한 태종의 불쾌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그들은

41)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7월 계묘.

42)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4월 을유.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불상이 이미 운반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하기는 했지만, 나주에서 불상운반에 필요한 자재와 기구를 제작하며 불상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⁴³⁾

제주도 법화사 아미타 삼존불상의 운반은 계획대로 성공하였다. 법화사의 삼존불상을 전라도 해남현으로 운반하는 데는 서울을 출발해서 불과 17일만이 소요되었다. 평소 서울을 출발해서 제주에 도착하는 데만도 한 달 여가 필요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빠른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에 태종은 상을 내려 박모를 護軍, 김도생을 通禮門 奉禮郎으로 각각 승진시켰다.⁴⁴⁾

황엄·한첩목아·양녕 등이 나주에서 기다리다가 법화사의 동불상 3좌를 건네받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태종 6년(1406) 7월 16일이였다.⁴⁵⁾ 그 행렬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였다. 神佛을 모시는 방 15개에 삼존불상·火光 및 蓮臺, 坐具를 나누어 잘 모셨다. 또 방에는 흙을 담아 놓고서는 모란·芍藥·해바라기 등의 기이한 꽃을 심기도 하였다. 또 판자 1천 장, 철 6백 근, 麻 7백 근을 사용하여 櫃를 만들었다. 삼존불상을 모신 세 개의 방은 높이와 폭이 각각 7척 쯤이며, 안에는 칸막이 용으로 백지 2만 8천 장과 면화 2백 근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행렬에 동원된 짐꾼만도 수천 여 명에 이르렀으니, 그 규모가 대단하였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사간원에서는 상소를 올려 황엄 등이 전라도에 머물면서 전라도 주민에게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농사철에 불상 운반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됨으로 인하여 농사를 잃게 되는 피해가 잇다르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⁴⁶⁾ 황엄 등은 불상을 운반하는 행렬이 이르는 곳마다 물건과 돈을 요구하였고, 심지어는 주민들을 살해하기도 하여 큰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⁴⁷⁾ 전라도 관찰사 박은은 황엄 등의 불상 운반 행렬에 필요한

43)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7월 계묘.

44)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6월 을유.

45) 『錦城日記』 丙戌년에는 황엄 일행 등이 5월 10일 나주에 왔다가 동년 6월 26일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제주 불상배귀사로 대명상 천사 黃嚴과 부천사 韓加勿 삼천사 楊齡·사천사 奇常德·力使 9명·도체찰사 朴錫命·종사관 安純 선위사 참지 의정부사 李源·좌군도총재 林整·중군 도총제사 鄭矩·접반사 의정부사 李文和·통사 판사 吳眞·전부사 李子瑛·전사인 朴茂·전직장 崔天老·金希卜·張中佐·高起中·내향사 李匡 등이 행차하여 5월 10일 나주에 왔다가 6월 26일 서울로 갔다. 따라서 나주에서 서울까지 20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6) 『太宗實錄』 권12, 太宗 6年 7月, 癸卯.

「黃嚴 韓帖木兒 楊寧 奇原 至自羅州…儼等奉銅佛像三座來 用龕十五 分盛佛像 火光蓮臺坐具 且將牧丹芍藥黃葵等異花 盛土於龕而種之 作椽用板千葉鐵六百斤麻七千斤 其佛像火光之龕三 崇廣各七尺許 內用隔白紙二萬八千張 綿花二百斤 擔夫數千餘人…」

47)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5월 정사.

여러 가지 요구를 순순하게 응하지 않고, 대응하기도 하였다. 이에 황엄 등은 한양에 도착하여 태종에게 전라도 관찰사 박은이 자신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⁴⁸⁾ 그러나 박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 얼마 없어 오히려 박은은 중앙의 左軍 同知摠制에 임명되었다.⁴⁹⁾

태종은 황엄 등이 동불상을 가지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행렬을 직접 맞이하지 않았다. 경기도 龍駒縣(즉 용인)에는 이조판서 李稷을, 良才驛에는 도승지 黃禧를, 궁궐로 들어오는 한강에는 정승 河崙과 趙英茂를 각각 보내어 맞이하도록 하였다. 국왕 자신은 병을 핑계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문무관리들로 하여금 남대문 밖에서 행렬을 맞이하도록 하였다.⁵⁰⁾

이는 황엄 등이 국왕이 직접 五拜三叩頭로 행렬을 맞이해 줄 것을 원하는 오만한 행위에 대한 거부의 표시였다. 황엄 등도 국왕이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정부에서 마련한 행렬 도착 축하연을 거부하는 등 서로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커다란 문제없이 태종 6년 7월 22일 황엄 등의 삼존불상 행렬은 북경을 향해 떠났다. 태종은 盤松亭에서 그들을 전송하면서 우군총제 趙勉을 따라 보내어 동불을 보내는 뜻을 전하도록 하였다.⁵¹⁾ 그후 明의 황제는 태종이 동불을 바친 대가로 한첩목아 등을 다시 조선에 보내어 서적 및 약재 등의 물품을 보내어 왔다. 구체적인 물품으로는 珊瑚間茄藍香帽珠 1串, 紵絲 30필, 熟絹 30필, 象牙 2隻, 犀角 2개, 『通鑑綱目』·『漢準四書衍義』·『大學衍義』 각 1部, 片腦·沈香·束香·檀香·蘇合油·白花蛇·朱砂·麝香·附子·金櫻子·肉 蓉·巴戟·當歸·乳香·沒藥·藿香·零陵香·甘松香 등의 藥材 18味였다.⁵²⁾

V. 法華寺의 廢寺

법화사에 안치되었던 銅佛像 3좌가 원나라 良工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明에 귀속된 이후, 법화사의 교세는 조선의 승유억불 정책과 맞불리면서 점차 약화

48) 『太宗實錄』 권12, 太宗 6年 7月, 癸卯.

49) 『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 5월 을축.

50)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7월 계묘.

51)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7월 기유.

52)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12월 정미.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되어 나갔다. 이러한 사실은 태종 8년(1408)에 水正[精]寺와 함께 法華寺에 소속되어 있던 노비의 수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는 다음의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즉,

의정부에서 제주의 법화사와 수정사의 두 절에 있는 노비의 수를 정하도록 아뢰었다. '제주목사 의 문문에 따르면, 州境에 裨補寺刹이 두 곳이 있는데 수정사에는 현재 노비가 130명이 있고 법화사에는 현재 노비가 280명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두 사찰의 노비를 다른 사찰의 예에 따라 각각 30명만 주고, 그 나머지 382명은 典農(寺)에 부치십시오' 하니, 왕은 그대로 따랐다.⁵⁴⁾

라 하여, 나라를 수호하는 裨補寺刹이 제주에는 법화사와 수정사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노비가 280명, 130명이 있었다. 그러나 태종 8년(1408)에 다른 지역의 예에 따라 노비를 각각 30명만 두고 나머지는 典農寺에 소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종 6년(1406) 제2차 사찰정리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사찰정리의 결과, 界首官(大邑) 지역 외의 사찰의 경우 收祖地 60결, 노비 30명만 남겨 두고 모두 혁파하였다.⁵⁴⁾ 제주의 경우는 2년 뒤인 태종 8년에 와서야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전농시에 소속된 382명의 노비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屯田 경작에 사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태종 8년 이전의 경우, 奴婢 數에서만 보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수정사보다도 법화사가 거대한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찰에 예속된 노비 수의 감소와 더불어 모든 사찰에는 노비 수에 준하는 승려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승려의 감소도 필수적으로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태종 8년(1408) 이후 수정사와 함께 법화사도 승유억불 정책에 의하여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세종의 강력한 抑佛策의 시행 즉, 寺刹 노비의 혁거 屬公, 禪教 兩宗으로의 종파 병합, 寺刹·寺田·常住僧 등의 액수를 재정리함으로써 가속화 되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민간 차원에서의 불교는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세종 9년(1427) 제주도 察訪 金爲民이 제주지방의 폐단을 아뢰는 조목 중에 帶妻僧들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즉,

54) 『太家實錄』, 太宗 6年 3月, 丁巳.

僧徒가 妻를 얻는 것은 (大明)律에 죄가 정해져 있고, 六典에서도 금지하는 바입니다. 제주의 승도들은 공공연히 처를 취하여 寺刹을 집으로 삼고, 그 弟子를 使役케 하여 그 妻子를 양육합니다. 대략 官家의 부역은 없으니 앉아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러니 육지의 승도들도 역시 모두 소문을 듣고 연못에 고기가 모이듯 (제주)로 몰리어 풀들이 바람에 쓸리듯 그 모양을 따르지만, 官에서는 이를 보고서도 예사로 알아 또한 금지하지 않으니 실로 弊風이 됩니다. 청컨대 제주의 帶妻僧徒를 일일이 모두 조사하여 牧子로 만들거나 혹은 軍額에 보충하십시오.⁵⁵⁾

라 하여, 僧徒가 妻를 얻는 것을 國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승도들은 妻를 거느리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전국의 승려들은 제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오히려 양민들은 國役을 피하기 위하여 승려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이는 곧 國役 담당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세종의 윤허에 따라 중앙정부는 이들을 조사하여 牧子 혹은 軍額에 보충하였다. 그렇지만 도첩제에 의해 국가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승려가 된 자들이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제주로 입도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교세가 점차 약화되어 나간 법화사가 언제 廢寺되었을까? 이에 대해 다소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료가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耽羅志』의 내용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 문헌이다. 이 책이 편찬될 당시 이미 없어진 사찰의 경우, 「今廢寺」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법화사의 경우,

법화사는 대정현의 동쪽 45리에 있는데, 僧 慧日의 詩에, '법화암가에 물화가 그윽하니, 대를 끌고 술을 휘두르며 홀로 스스로 논다. 만일 세상 사이에 항상 머무르는 모양을 묻는다면, 배꽃은 어지럽게 떨어지고 물은 달아나 흐른다.'⁵⁶⁾

라 하여 '今廢寺'란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일단 법화사는 1530년대까지는 존속되지 않았나 생각된다.⁵⁷⁾ 僧 慧日의 詩는 어떠한 기록을 보고 옮겨 놓은 것에

55) 『世宗實錄』, 世宗 9年 6月, 丁卯.

56) 『新增東國輿地勝覽』, 大靜縣 佛宇條.

「法華寺：在縣東四十五里 僧慧日詩 法華庵畔物華幽 曳竹揮松獨自遊 若問世間常住相 梨花亂落水奔流」.

57) 1601년 吉雲節 역모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御史로 제주에 파견된 金尙憲의 저서 『南嶽錄』에 冲庵의 水精寺 重修記가 전해지고 있다(金尙憲, 『南嶽錄』 권 1, 9월 22일 조). 그런데 충암 金淨은 1520년 8월부터 1521년 10월까지 제주에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수정사가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 제주에는 비보 사찰이 수정사와 법화사 두 곳임을 감안할 때, 1520년대에 수정사의 중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법화사도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불과하다. 왜냐하면 혜일은 고려시대 正言을 지낸 李穎의 숙부인데, 『東文選』에 의하면 李穎은 충렬왕 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⁵⁸⁾ 이로 미루어 혜일의 생존시기도 대략 13세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효종 4년(1653) 이원진에 의해 편찬된 『耽羅志』 大靜縣 佛宇條에,

법화사는 (대정)현 동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절터와 羅漢殿 자리의 주춧돌과 섬돌을 살펴보면 모두 크고 정밀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니 그 전성 시에는 굉장하였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단지 초가암자 몇 칸만 있다. 그 서쪽에 물 맛이 좋은 샘이 있는데 절 앞 논에 물을 댈다.⁵⁹⁾

라 하여, 1653년 경에는 이미 법화사가 廢寺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세간에서 이형상 목사가 법화사를 毀寺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암자의 형태로 남아 있던 초가를 말하는 것이다. 위의 기록처럼 법화사는 효종 4년 이전에 이미 헐려졌던 것이다. 또한 그 절터 및 羅漢殿 자리의 주춧돌과 섬돌을 살펴보면 모두 크고 정밀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고 있어 전성 시대에는 법화사의 규모가 굉장했을 것이나, 지금은 단지 초가암자 몇 채만 남아 있고, 그 서쪽에는 甘泉이 있어서 절 앞 논에 물을 대고 있다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법화사의 廢寺는 1530년에서 1653년에 이르는 시기인데, 전후사정을 고려해 볼 때 16세기 후반이 아닌 가 생각된다.

VI.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화사의 창건은 13세기 이전에 창건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찰이 통일신라시대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장보고에 의해 창건되어 졌는지는 앞으로 좀더 많은 고고

58)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법화사 내에 있는 「曹溪宗大宗師晦明誌漢拿山南法華寺再建故蓬廬觀尼師功蹟碑」에서도 확인된다. 즉, 이 비문 우측면에 '高麗正言李穎之叔慧日'이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59) 李元鎮, 『耽羅志』, 大靜縣 佛宇條.

「法華寺 在縣東四十五里 今廢 觀其寺基 及羅漢殿基 柱礎階砌 皆用大熱石 全盛時雄壯可想 今只有茅菴 數間 西有 甘泉 溉于前稻田」.

학 자료 및 문헌자료의 발굴이 요청된다. 사실, 당시의 교역로나 장보고에 의해 창건된 산동반도 적산법화원, 전남 완도 청해진의 법화사가 법화사상에 기초한 관음신앙의 사찰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제주 법화사도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즉, 제주 법화사의 경우도 관음신앙의 사찰이며, 법화사 인근 지역에 중국과의 교역을 암시해 주는 '唐浦'라는 지명의 존재나 소규모이긴 하지만, 9~10세기경의 도자편(중국 도자편을 포함하여)이 보이는 점에서 장보고의 창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물적증거가 빈약한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계뿐 아니라, 중국·일본학계와의 공동으로 장보고 및 그와 관련된 사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법화사의 중창은 '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이라 명문된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1269년(원종 10, 己巳, 至元 6)에 시작하여 1279년(충렬왕 5, 己卯, 至元 16)에 마무리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원이 그 영향력을 제주에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화사 사찰을 허물고 새롭게 대대적으로 중창함으로써 법화사는 고려 후기 제주도의 대표적인 사찰로 성장하게 되었다.

셋째, 법화사에 원나라 良工이 만든 아미타 삼존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태종 6년(1406)에 명이 사신을 보내어 홍무제 및 황비의 은덕을 기리는 祭를 드린다는 이유로 가져갔다. 이와 같이, 彌陀三尊 불상을 명에게 넘겨주면서 법화사의 교세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태종·세종대에 걸친 억불책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법화사는 16세기 후반에 와서 廢寺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7세기에는 초가암자 몇 채만으로 佛道의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8세기 초에는 그것마저 사라졌다. 그 후 여기에 다시 佛道가 미치기 시작한 것은 제주읍 화북리 출신 安蓬盧觀尼師가 1908년 관음사 창건으로 제주불교를 중흥시킨 후, 1920년대 후반 安道月禪師가 유서깊은 이 곳에 布教所를 창건하면서이다.